

2014학년도 수시모집 일반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I)

모집단위	학부/학과	수험번호	성명
------	-------	------	----

◆ 유의 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번호에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지 분량은 문항별 답안 길이에 맞추어져 있음.

감독확인



이화여자대학교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권력의 핵심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권력을 가지지 못하면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없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무엇이든 말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지위가 낮은 사람은 하고 싶은 말도 꼭 참을 때가 많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차례를 기다릴 필요가 없지만 지위가 낮은 사람은 자신의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권력의 유무는 웃음의 심리에도 주목할 만한 차이를 만들어 낸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할 때만 웃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 그에게는 사고 규칙이 중요하지 않다. 반대로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세운 사고 규칙을 따라야 한다. 내면의 감정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며 아무 때나 웃지 못한다.

이 차이를 실제로 입증하기 위한 실험이 행해졌다. 실험 결과 지위가 높은 낮은 모든 피실험자들의 웃는 횟수는 비슷했지만, 웃은 이유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지위가 낮은 피실험자들은 자신이 웃어야 한다고 생각될 때 웃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내킬 때에 웃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웃음은 선택인 반면,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웃음은 의무였다.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웃어야 하는지, 언제 웃으면 안 되는지를 관찰하고 있었다. 권력은 곧 자유를 의미한다.

[나] 고대 그리스 희극에는 ‘에이론(eiron)’과 ‘알라존(alazon)’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에이론은 특별히 잘난 구석이 없거나 자기를 비하하여 낮추는 인물이지만, 알라존이라는 힘센 허풍장이를 골탕 먹이고 놀림감으로 삼는다. 겉으로 표현된 말과 그 실질적인 의미 사이에 거리가 있음을 가리키는 용어 ‘아이러니(irony)’가 이 ‘에이론’으로부터 유래하였다.

에이론은 교묘한 말로 알라존을 비판하지만 알라존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 불일치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한다. 에이론을 통해 작가는 교묘히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며, 관객은 에이론의 교묘한 말재주를 알아차림으로써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였다는 지적 만족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관객이 있다면, 에이론의 말을 알아들은 똑똑한 관객은 그 무지한 관객을 보며 또 다른 쾌감을 맛보게 된다.

[다] 말뚝이: (등장. 울긋불긋한 탈을 썼다. 병거지 모자에 짧은 옷을 걸치고 손에는 채찍을 들었다. 장단에 맞추어 우스꽝스런 춤을 추며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여 들어온다.)

양반 삼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 매우 점잔을 피우며 들어온다. 자못 거만스러운 모습이다. 첫째는 생원님, 둘째는 서방님, 셋째는 도령님이다.)

말뚝이: (중양으로 나와서) 쉬어-. (음악과 춤이 멈추자 큰소리로 외친다.) 양반 나오신다-, 양반! 양반이라 하니 정승 판서 다 지낸 집의 양반인 줄로 잘못 알지 마시오. 개가죽 옷 개잡량의 양이라는 글자에 개다리소반의 반이라는 글자를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 삼형제: 야, 이놈! 뭐라고?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제대로나 들었는지 모르겠소. 육조 판서에 삼정승을 지낸 이 생원네 삼형제 분이 나오신다고 그리 했소.

양반 삼형제: (멋모르고 우쭐하여 함창한다.) 이 생원이라네-. (음악 장단에 맞추어 같이 춤을 춘다.)

(이후 마당의 관객들은 천한 말뚝이가 계속하여 양반을 놀리는 것을 보며 한바탕 떠들썩하게 웃는다.)

[라] Having a sense of humor is perhaps the most commonly overlooked virtue. In a fast-paced, stressful modern environment, humor helps us maintain a sense of proportion and ease. It is a core attitude of looking at things in a positive light whenever we find ourselves in difficult situations. The sound of roaring laughter is far more contagious than any cough, snuffle, or sneeze. When laughter is shared, it binds people together and increases happiness and intimacy. Beyond creating joy and amusement, laughter also triggers healthy physical changes in the body, and helps build constructive relationships.

But being funny is hard work. Some people think that humor is easy and that anybody can be funny with very little effort. This is not true. To be funny, there are a lot of things you must know about humor and laughter, and many situations you must prepare for. The bottom line when you make people laugh is not “Did you get a laugh?” but “Did you get a laugh without offending others?” For example, there are types of offensive jokes such as dialect jokes when you can’t mimic an authentic dialect or derogatory ethnic jokes. Learning humor is like learning to play the piano. Nearly anyone can learn to make music on the keyboard; however, few will be invited to play at a concert. Likewise, for an average person to make others laugh sincerely, he or she has to sharpen the sense of humor through applied study and practice.

[마] 사람들이 지나치면서 우리에게 보내는 웃음을 생각해 보자. 누군가 웃는 것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환한 웃음으로 답하게 되는 것은 왜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미처 생각해 보기도 전에 이미 웃음으로 답하는 경우가 많다. 세상에는 어떤 폭력보다 더 빨리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들이 있다. 일상생활은 이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공명(共鳴) 현상으로 가득하며, 심리학에서는 이를 ‘거울효과’라고 부른다.

태어난 지 일주일 정도 된 유아는 자아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울효과에서 보이듯 어른들의 웃음을 따라하면서 사회적인 연대감을 가지게 된다. 물론 직감적으로 말이다. 이 시기의 유아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경험한다. 이와 같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또렷한 자아의식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 같은 종에 속하는 다른 생명체와 직감적으로 연대하고 있다는 감정, 그리고 이 생명체와 함께 공통된 감정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생기기 때문이다.

거울효과를 통해 사회적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 이 정체성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기본적인 욕구를 바탕으로 한다. 아이가 태어난 지 2개월이 지나면 엄마를 따라 웃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보여 주려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어른들의 시선이 가는 방향으로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어른들의 주의를 끌기 시작한다. 이는 아이가 어른과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있음을 거울반응으로 표현한 것이다.

[바] 웃음은 기쁨을 나타낸다. 그러나 우리가 웃을 때 어떠한 기쁨을 느끼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직 그 누구에 의해서도 정의되지 않았다. 그것이 기지나 익살에서 나온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지나 익살과 상관없는 불온과 점잖지 못한 행동을 보고도 웃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것이 케케묵거나 흔해지면 별로 웃기지 않는데, 이를 보면 무엇이든 새롭고 예기치 않은 것이어야 웃음을 유발함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종종 자신의 행동 때문에도 웃지만 대체로 타인의 결함을 보고 웃는다. 이것은 비교를 통해 자신의 우월함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타인의 익살에 대해서도 웃는데, 이 웃음은 자신의 기쁨을 유지하면서 타인의 어리석음을 발견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경우 웃음의 감정은 우리 자신의 우월함을 갑작스럽게 떠올리면서 생겨난다. 다른 사람의 결함이나 어리석음과의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높이 평가할 수 있겠는가?

대개 웃음의 감정은 낮은 사람의 불품없음에서 비롯된 갑작스런 우쭐함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친구나 친지의 불품없음에 대해서는 웃지 않는다. 그들은 낮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웃었던 일에 대해 거듭 웃는 일은 거의 없다. 결국 타인에 대한 웃음에는 낮됨, 불품없음, 갑작스러움, 이 세 가지가 결부되어 있다.

[사] 웃음은 실제적이든 상상적이든 같이 웃는 다른 사람과의 일치, 말하자면 공범 의식 같은 것을 숨기고 있다. 연극을 보는 관객들의 웃음이 극장 안의 사람이 많을수록 더 커진다는 것은 누누이 이야기된 바가 아닌가. 다른 한편 희극적 효과를 유발하는 요소들이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쉽게 옮겨질 수 없으며, 그 사회의 관습 및 관념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도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웃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웃음을 그 본래 영역인 사회에 다시 위치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웃음의 유용성은 그것이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에서 찾아야 한다.

사회생활은 상호 적응의 노력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상호 적응을 가로막는 성격과 행동의 모든 경직성은 사회 차원에서 경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 안에서의 중심 이탈, 즉 무기력함과 고립을 나타내는 징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직성에 의해 사회가 물리적인 위해(危害)를 받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적 강압으로 제지할 수 없다. 사회는 그것에 단지 제스처로만 대응한다. 웃음은 사회적 제스처이다.

웃음은 웃음거리가 될 때 느끼는 불안감으로 중심 이탈을 막는다. 그리고 자칫하면 고립되고 무기력해지기 쉬운 자잘한 우리의 일상적 행동들을 끊임없이 각성시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경직성으로 인해 사회 질서의 표층에 고립된 모든 것들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웃음이다.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가능한 한 경직성을 줄이고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하기를 기대한다. 경직성은 웃음의 대상이며, 사람들의 웃음은 그것에 대한 정별인 셈이다.

[아] 사람들은 상호작용을 할 때 다양한 사회적 관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관계들은 저마다 다른 논리를 갖고 있다. 우열의 논리는 암묵적인 위협과 복종에 기초하며, 상황이 바뀌면 그 관계도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우정의 논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끝까지 돕겠다는 약속에 근거한다. 사람들은 우위를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친구를 원한다. 우월한 지위는 시들 수 있지만, 친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곁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관계든 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거나 영리하거나 부유하거나 잘생겼거나 인맥이 좋기 마련이다. 거기에는 항상 지배-복종 또는 유명인-팬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지만, 친구 사이라면 어느 쪽도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대개의 웃음에는 타인에 대한 놀림과 조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우정의 논리에 따른 웃음에서는 놀림의 공격성이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 경우 웃음을 유발하는 농담은 두 사람의 관계를 측정하는 저울이다. 누군가 재치 있는 농담을 날릴 경우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우정이 짝들 수 있다. 반대로 그 농담에 달갑지 않은 웃음이나 냉랭한 침묵을 보인다면 그는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친구 간에도 우위를 점하려는 유혹이 상존하지만, 친구들끼리 끊임없이 키득거리는 것은 관계의 기초가 여전히 우정임을 알게 해 준다.

- 1 제시문 [가]와 [나]를 참고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관객의 웃음을 설명하시오. [30점]
  
- 2 제시문 [라]와 [마]에서 언급하고 있는 웃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30점]
  
- 3 제시문 [바]와 [사]를 대비하여 요약하고, 제시문 [아]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와 [사]의 웃음을 분석하시오. [40점]

# 201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출제 의도 및 우수답안

- ◆ 대학명: 이화여자대학교
- ◆ 모집시기: 수시모집
- ◆ 전형명칭: 2014학년도 수시모집 일반전형
- ◆ 모집계열: 인문계열 I
- ◆ 출제유형: 통합교과형 중 자료제시 논술형

## ◆ 개요

- 시험시간: 100분
- 출제문항수: 3문항
- 답안지 양식, 작성 분량: A3용지 2페이지
- 지정된 필기구 : 검은색 펜이나 연필
-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번호에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지 분량은 문항별 답안 길이에 맞추어져 있음

## ◆ 출제방향(취지) 및 교과서 관련여부 및 근거:

2014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 1에 출제된 제시문들은 웃음과 권력, 그리고 웃음의 논리와 사회적 기능에 대한 글들을 선정하였다. ‘웃음’은 인간의 매우 기본적인 심리와 행동 중 하나이지만, 웃음의 권력 관계와 문화, 그리고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이번 제시문에서는 우리의 전통 가면극에서부터 최근 서구에서 실시된 실험 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웃음의 양상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한편, 웃음을 낳는 언어와 의도의 관계, 웃음과 개인 정체성의 형성, 웃음의 심층에 작용하는 권력 관계, 그리고 웃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 웃음에 대한 여러 층위의 분석과 통찰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웃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제시된 입장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비판적 평가, 그리고 적절한 근거와 함께 대상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인문계 논술에서는 영어 제시문을 포함하며 3개의 제시문([나], [다], [라])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출제되었다. 모든 제시문의 소재와 범위를 학교 교육과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도록 주제 선정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통해 오늘날 다양한 사회적 관심사와 밀접하게 연관된 이슈들을 성찰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묻고자 하였다. 따라서 평소 교과서의 내용을 숙지하면서 이를 인문사회적 현상에 응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학생들이라면 별도의 선행지식 없이도 어렵지 않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 평가기준:

- ① 주어진 상황과 제시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
  -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력
  - 핵심적인 개념, 주장과 근거, 제시문에 대한 종합적 이해력
  - 올바른 자료해석 능력 및 사고의 정확성과 통합성
- ② 객관적 논리적 근거에 입각한 논증력
  - 주어진 조건과 관계없는 장황한 자기 주장은 감점 요인
- ③ 제시문 주장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
  -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비판 능력
  - 문항 자료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제시문 주장에 대한 비판 능력
  - 구체적 사례와 일반적 주장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사고 능력
- ④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 능력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의 명료성 등
  - 종합적 문제해결 능력과 일관성 있는 사고력과 논리력

[출제의도]

**[문제 1]** 이 문항은 주어진 개념을 활용하여 대상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현실 세계의 인간의 삶과 문학적 허구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행동과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또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친숙한 전통 가면극을 제시 문으로 선정하여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고대 그리스 희곡에서 유래한 개념, 현대 사회 서구에서 행해진 실험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고대와 현대,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폭넓은 사고와 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문제 2]** 본 문항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웃음’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경험하는 웃음이라는 감정 표현이 과연 자연스러운 본능에 의한 것인지, 학습 및 훈련이라는 인위적인 사회화의 과정을 거친 결과인지를 이해하며, 근본적으로 웃음의 발생 배경, 조건, 기능 등을 그 사회적 맥락과 연결하여 복합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문제이다. 특히 한글 지문과 더불어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영어 지문을 포함시켜 내용에 대한 이해력 및 분석력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영어 독해력까지도 포괄적으로 평가한다.

**[문제 3]** 제시문 [바]에서의 웃음은 우위의 입장에서 상대의 열등성을 비웃는 웃음이고, 제시문 [사]에서의 웃음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간의 우정을 나누는 웃음이다. 제시문 [아]는 이러한 웃음의 두 측면을 우열의 논리와 우정의 논리라는 사회관계의 두 측면에 입각해서 설명한다. 본 문항은 각각의 글 안에 들어있는 대립적 입장을 찾아내는 독해능력과 다시 그 둘을 포괄적으로 종합하여 정리하는 사고능력 및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표현능력 등을 평가하고자 한다.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는 심리학자인 마리안 라프랑스의 『웃음의 심리학』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글에서 라프랑스는 웃음에 작용하는 권력 관계에 주목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력의 속성이 웃음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실험을 통해 입증해 보이고 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일반적인 웃음에 권력 관계가 작동하며, 웃음을 마음대로 웃을 수 있는 자유는 권력을 가진 자에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시문 [나]**는 노드롭 프라이의 『비평의 해부』와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한 글이다. 그리스 희곡에 등장하는 ‘에이론’과 ‘알라존’이라는 인물의 특성, 그리고 관객이 극을 통해 현실 속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권력 관계의 역전을 맛보면서 느끼게 되는 즐거움과 재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우리 가면극 「봉산 탈춤」의 일부이다. ‘이두현 채록본’을 근간으로 하는 교과서의 인용 부분을 현대 학생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다듬었다. 봉산 탈춤은 황해도 지방에서 전승되던 가면극의 하나로서 익살과 웃음을 통해 현실의 모순을 폭로한다. 말뚝이의 재담을 통해 양반의 허세가 드러나고, 현실의 권력 관계는 역전되며, 이를 지켜보며 웃음을 공유하는 관객들은 일시적인 해방감을 느끼게 된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교과서 『English II』 (금성출판사, 2009)의 ‘Humor is a Virtue’ 장의 내용을 발췌 및 수정한 글이다. 유머가 사회에서 지니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줌과 동시에, 유머가 진실한 웃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학습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제시문 [마]**는 요아힘 바우어의 『공감의 심리학』에서 발췌 및 편집한 글이다. 유아가 명확한 자아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신을 돌봐주는 이의 감정 표현을 직감적으로 따라하며 사회적 연대감 및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거울효과임을 소개하고, 유아의 웃음 또한 이 같은 거울효과에 예로 설명한다.

**제시문 [바]**는 토마스 홉스의 『선집』에 실려 있는 「인간의 본성」에서 발췌한 글이다. 인간 본성을 비교와 경쟁과 투쟁의식으로 간주하는 홉스는 이 글에서 웃음을 타인의 열등함에 대한 웃음(비웃음)으로 설명한다.

**제시문 [사]**는 희극의 분석을 통해 웃음의 사회성을 밝힌 앙리 베르그송의 저서 『웃음』에서 가져왔다. 여기에서 베르그송은 웃음을 상대의 경직성을 각성시켜 유연성을 회복하게 하는 사회적 제스처로 해석한다.

**제시문 [아]**는 진화심리학자 스티븐 핑커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서 발췌한 글이다. 과학적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감정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 핑커는 웃음이 친구들과 간의 우정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 제시문 [가]와 [나]를 참고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관객의 웃음을 설명하시오. [30점]

문항 분석	
what	how
제시문 [다]에 나타난 관객의 웃음을	설명하라.

● 요구사항(requirement)

- 제시문 [가]와 [나]를 참고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웃음을 설명하라.

- 설명형 문항으로서 제시문 [가], [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관객의 웃음을 설명하라고 하고 있다.
- 따라서 먼저 각 제시문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 제시문 [가]에서는 권력의 유무에 따라 웃음, 혹은 웃는 행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
- 제시문 [나]에서는 그리스 희극을 보는 관객들의 반응을 통해 희극의 재미와 웃음의 효용을 설명하고 있다.

**2** 제시문 [라]와 [마]에서 언급하고 있는 웃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30점]

문항 분석	
what	how
웃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라.

● 요구사항(requirement)

- 제시문 [라]와 [마]에 나타난 웃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라.

- 두 제시문에 각각 나타난 웃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라는 문항이다.
- 따라서 각 제시문의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 두 제시문 모두 웃음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 및 기능한다는 기본적인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웃음이 사회 속에서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하지만 제시문 [라]에서는 웃음을 유발하는 유머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학습, 훈련, 연습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시문 [마]에서는 거울효과 시기의 유아의 웃음을 언급함으로써 웃음의 직감적, 본능적 성격을 강조한다.

**3** 제시문 [바]와 [사]를 대비하여 요약하고, 제시문 [아]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와 [사]의 웃음을 분석하시오. [40점]

문항 분석	
what	how
제시문 [바]와 [사]의 내용을	대비하여 요약하라.
제시문 [아]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와 [사]의 웃음을	설명하라.

● 요구사항(requirement)

- 제시문 [바]와 [사]의 내용을 대비하여 요약하고, 제시문 [아]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와 [사]의 웃음을 설명하라.

- 설명형 문항으로 제시문 [바]와 [사]의 내용을 대비하여 요약하고 제시문 [아]에 근거하여 제시문 [바]와 [사]를 분석하라고 하고 있다.
- 따라서 제시문 [바], [사], [아]의 내용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 제시문 [바]에서는 상대방과 자신의 비교를 통하여 웃음의 감정을 설명하고 있다.
- 제시문 [사]에서는 웃음이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를 유연하고 조화롭게 한다고 하고 있다.
- 제시문 [아]는 사회관계에는 우열의 논리와 우정의 논리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통하여 웃음을 설명하려 하고 있다.

◆ 예시답안:

**1** 우수답안

제시문 [가]는 권력의 유무에 따른 웃음의 차이를 실험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실험으로 나타난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웃는다. 반면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아무 때나 웃지 못하며, 감정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현실 세계 속의 인간은 권력의 유무에 따라 웃음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나]는 그리스 희극의 웃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약자 에이론은 교묘한 말로 힘센 강자 알라존을 놀리고 골탕 먹이며 알라존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관객들은 작가의 이러한 의도를 알아차림으로써 극적 재미를 느끼고, 이 세상의 모순과 진실을 깨닫게 된다.

제시문 [다]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말뚝이가 양반을 풍자하고 있다. 극 속의 양반들은 점잔을 떨며 거만하게 굴지만 사실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힌 허위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엇보다도 말



뚝이가 자신들을 비꼬며 풍자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매우 어리석은 존재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제시문 [다]의 웃음은 관객들의 웃음이다. 관객들은 천한 말뚝이가 양반을 놀려 먹는 것을 보며 떠들썩하게 웃는다. 이때의 웃음은 제시문 [나]의 경우와 유사하게 현실의 약자가 허구적 공간에서 현실의 강자를 비판하고, 그의 어리석음을 폭로하는 데서 비롯된 웃음이다. 제시문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 세계 속에서는 권력의 유무에 따라 웃음의 자유도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문학적 상상의 공간에서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역전되며, 이 관계의 역전은 관객들에게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자유를 준다. 현실 권력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희극은 우회적 비판을 통해 한바탕 큰 웃음을 웃게 하며,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로 하여금 현실 세계의 제약을 일시적으로나마 벗어나는 해방감을 맛보게 한다.

## ● 우수답안 분석

이 문항은 제시문 [가]와 [나]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의 권력 관계와 희극 속의 웃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웃음, 즉 문학적 상상을 통해 재현된 세계를 보면서 현실의 관객이 웃게 되는 상황의 기제와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답안은 제시문 [가]에서 권력과 웃음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행해진 실험의 내용과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현실 세계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에게 주어지는 웃음의 제약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 답안은 제시문 [나]에서 언급된 그리스 희극의 두 인물형을 잘 정리하고 있으며, 희극을 보는 관객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극적 재미를 느끼고 세상의 진실을 깨닫게 된다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제시문 [다]에 나타난 관객의 웃음은 현실 속에서 웃지 못하는 자들이 희극을 통해 웃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답안은 말뚝이의 풍자의 특징, 양반들이 보이는 허위의식과 어리석음 등 정확하게 파악하여 제시문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시문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열등한 인물의 우회적 비판, 그리고 그로 인한 권력 관계의 역전이라는 양상을 잘 분석하여 보여 주고 있다. 나아가 제시문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의 웃음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와 대비되는 문학적 공간에서의 웃음의 기능과 사회적 의미를 제시하여 문항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의 예를 보여 주고 있다.

## 2

### 우수답안

제시문 [라]와 [마]는 공통적으로 웃음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함을 보여줌으로써 웃음의 사회적 성격을 드러낸다. 제시문 [라]에 따르면 유머는 기본적으로 유머를 행하는 이와 이를 보고 웃는 이라는 사회적 관계를 전제하고 있으며, 이에서 발생하는 웃음은 주변으로 전파됨으로써 그 효과가 커진다. 제시문 [마]에서 설명하는 유아의 웃음은 자아 형성기 이전에 아기가 자신을 돌봐주는 어른을 따라하는 ‘거울효과’에 의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최소 두 사람 이상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거울효과를 통하여 유아가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기에 웃음이 인간의 사회적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웃음의 사회적 성격 이외에도 두 제시문 모두 웃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먼저 제시문 [라]를 통해서 웃음이 사람들의 결속을 다지며 정서적, 신체적, 및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제시문 [마]에서는 거울효과를 통한 유아의 다른 감정 표현과 마찬가지로 웃음도 유아의 사회적 연대감 및 정체성 형성에 있어 중요한 과정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제시문에서는 웃음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도 찾을 수 있다. 우선 제시문 [라]는 웃음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는 사회화에 의한 감정 표현임을 강조하는데, 웃음을 유발하는 유머가 구체적 사회적 맥락과의 관련 속에 학습, 훈련, 연습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방언을 부적

절하게 농담거리로 삼거나 인종 비하적 농담을 하는 것처럼 사회적 맥락 및 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유머는 대상에 따라 웃음보다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이와 달리 제시문 [마]에서는 특히 유아의 웃음에 집중하여 직감적 감정 표현으로서의 웃음에 대하여 설명한다. 유아가 자신과 타인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자신을 보고 웃어주는 이를 직감적으로 따라 웃는 것이 같은 따라 하기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본능에 기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 우수답안 분석

본 답안에는 문제에서 묻고 있는 두 가지 요소, 즉 제시문 [라]와 [마]에 나타난 웃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있다. 우선 두 제시문의 공통점에 대해서는 제시문 [라]와 [마] 모두 서로 다른 맥락에서의 웃음에 대하여 설명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웃음이 사회적 관계망 내에서 발생하며 이의 형성, 유지와 관련이 있다는 견해를 공유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고 생활해 가는 데에 웃음이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으로 내포되어 있음을 잘 읽어내고 있다. 차이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시문 [라]가 웃음을 유발하는 유머 감각 및 이에 따른 웃음 자체에도 결국은 사회적 학습 및 훈련의 과정이 개입되어 있다고 여기고 있는 반면, 제시문 [마]에서는 인간의 본격적 사회화가 이루어지기 이전 시기인 유아기의 ‘거울효과’에서의 따라 하기로써 웃음을 언급함으로써 웃음을 직감적으로 유발되는 감정표현으로 보고 있음을 잘 대비시키고 있다. 이 문항에서는 제시문 [라]가 일반적인 웃음과 유머, [마]가 유아기라는 특정 시기의 웃음을 다루면서 논지의 표면에 드러나는 차이점을 읽어내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두 제시문 모두 사회적 소통 수단으로서의 웃음의 본질, 그 기능 등에 대한 고찰이라는 글의 내적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 우수답안

제시문 [바]가 설명하는 웃음은 비교 우위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열등함을 비웃는 웃음이다. 상대가 불품없고 어리석어 보이는 순간 갑작스럽게 그에 비해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낌으로써 그 만족감과 기쁨에서 웃게 된다는 것이다. 웃음의 성립조건은 상대가 나와 관계없는 낯선 사람이라는 것, 상대가 나보다 못한 열등함을 보인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처음으로 알아차린다는 것이다.

제시문 [사]가 설명하는 웃음은 한 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들 간의 상호 적응과 조화를 위한 웃음이다. 누군가가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 중심으로부터 이탈하여 홀로 고립되어 가는 경직성을 보일 경우 사람들은 그 경직성을 웃음으로써 그를 각성시켜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고 결국 사회에 잘 적응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웃음은 상대의 경직성을 경고하여 유연하게 만듦으로써 결국 바람직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제스처라고 볼 수 있다.

제시문 [아]는 사회관계 안에 내재된 두 가지 논리에 따라 웃음의 두 측면을 설명한다. 하나는 사회적 지위나 권력에 따른 우열의 논리에 따른 웃음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 대등하고 평등한 수평적 친구관계에서 성립하는 우정의 논리에 따른 웃음이다. 이러한 구분에 근거해 보면 제시문 [바]의 웃음은 상대의 열등함과 비교하여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고자 하는 웃음이므로 우열의 논리에 따른 웃음이다. 이러한 우열의 비교에는 사회적 지위와 권력에 따른 암묵적 위협과 복종의 논리가 내재해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제시문 [사]의 웃음은 상대의 경직성을 덜어 유연하게 만듦으로써 바람직한 상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웃음이므로 우정의 논리에 따른 웃음이다. 상대의 유연성을 촉구하는 사회적 제스처로서의 웃음은 결국 가벼운 농담과 웃음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여 서로 간의 우정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우수답안 분석

본 문제는 제시문 [바]와 [사]에 나타난 웃음에 관한 관점의 차이를 대비시키고 나서, 그 두 관점을 제시문 [아]에 입각해서 다시 분석해보라는 것이다. 위의 답안은 제시문 [바]가 나와 타인을 적대관계로 놓은 개체의 관점에서 웃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 [사]는 웃음을 상호공동체성 내지 사회성의 관점에서 해명하고 있음을 잘 대비시키고 있다. 나아가 제시문 [아]에서 언급된 우열의 논리와 우정의 논리의 구분에 입각해서 제시문 [바]와 [사]를 정확하게 분석한다. [바]에서 논한 웃음은 상하 권력관계에 입각한 우열의 논리에 따른 웃음이라는 것, 제시문 [사]에서 논한 웃음은 사회적 제스처로 우정의 논리에 따른 웃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기에 좋은 답안이라고 생각한다.